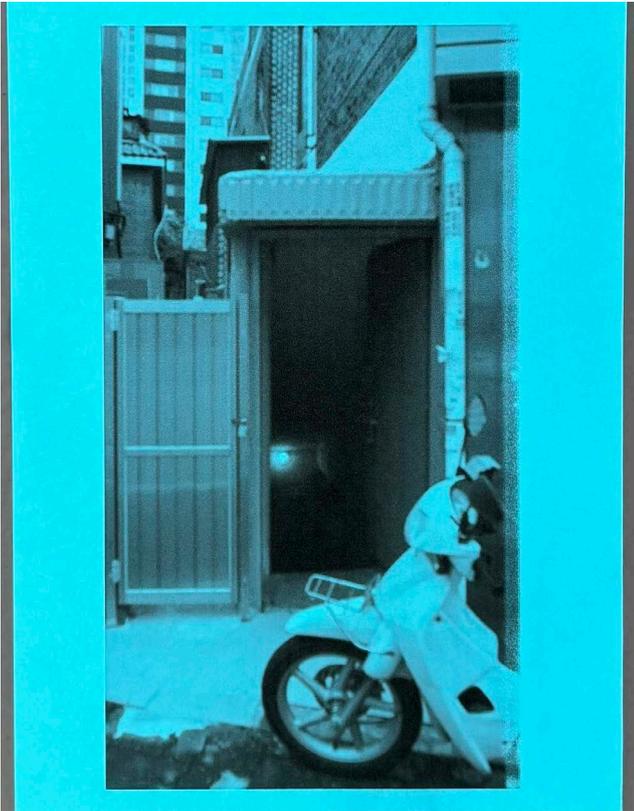


## 얼룩진 공간과 회화

고근호



전시 기록 영상: <https://youtu.be/-gykMnU4qyw>

회화만으로 구성하는 전시를 준비할 때마다 난관을 마주한다. 조금은 예외적인 전시를 만들고 싶지만, 이미 캔버스에 그려져 완결된 상태로 존재하는 작품을 전시장에 가져왔을 때 무엇을 더 도모할 수 있을지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 작품을 보기 좋게 디스플레이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 같은데, 막상 설치를 완료하고 나면 충분히 시도하지 못한 것 같아 불안하기 일쑤다.

나는 올해, 운 좋게도 올해 운영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집이라는, 예외적인 공간에서 전시할 수 있었다. 그곳을 떠올리며 작업하니 평소와는 다른 것들이 나왔다. 집 안에 무언가를 놓을 때 지루하지 않으려면 어떤 작업을 해야 할지 고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재밌는 생각이 떠올랐다. 전시할 공간의 성격에 따라 많은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을, 전시를 준비하며 실감할 수 있었다.

얼마 전 송민지 작가의 프로젝트를 봤다. 《웁 프로젝트》라는 제목이었는데 예약제로 운영되었다.<sup>1</sup> 그의 작업을 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 프로젝트가 무엇일지 감이 오지 않았다. 전시장으로 꾸준히 사용되어 온 공간도 아닌 듯했고, 인스타그램 소개 글에도 ‘작업을 지하 공간으로 옮기며 시작된’ 프로젝트라는 정도의 정보만 있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 도착하니, 이 프로젝트는 분명 전시였다. 그림을 그냥 벽에 건다고 전시가 되는 게 아닌데...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 프로젝트를 전시라고 느끼게 했을지를 곱씹으며 이 글을 쓴다.

전시는 중랑구의 어느 상가 건물 지하에서 열렸다. 공간은 아주 넓고 거칠었다. 벽에 칠해진 민트색 페인트는 오래전에 칠해진 것처럼 흐릿했고, 여기저기 스며든 얼룩과 때를 이 공간이 긴 시간 동안 방치됐다는 걸 알려주고 있었다. 천장에는 낡은 형광등이 달려 지하를 그리 밝지 않게 비추고 있었다. 이런 환경에서 본 송민지의 회화는, 다른 전시에서 봤던 작업과 크게 달라진 건 없었는데도, 분명 다르게 보였다. 평소 작가가 다루던 작품 크기보다 조금 더 커졌을 뿐, 작업 자체는 변한 것 같지 않았고 달라진 건 오직 환경으로 보였다. 전에 주로 전시했던 회고 깔끔한 공간이 아니라 얼룩지고 오래된 상태가 그대로 드러난 공간이었다. 그리고 그 차이 덕분에 작업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마치 그의 회화가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다.

어쩌면 송민지의 회화는 애초부터 화면 밖 공간과 상호작용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건 아닐까? 그렇다면 그의 작업 속 어떤 요소가 그런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는 걸까? 그의 회화는 얼핏 역동적으로 물감을 뿌려낸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조건을 설정하고 물감을 흘려보낸 뒤 기다리는 작가다. 천의 일부를 벽에 고정해 두기도 하고, 계단에 기대어놓기도 하고, 접어두기도 하면서 물감이 흐를 조건을 만든 뒤, 물감을 흘려보내고 마르길 기다린다. 그를 생각하면 그 기다림 전후에 존재하는, 의도와 현상 사이의 고군분투에 관해서 생각하게 된다. 물감이 어떻게 흐를지 예상되긴 할 것이다. 그건 피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그게 예상대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을 것이다. 물감이 흐른 자국이 자신의 머리와 손을 빠져나갔을 때, 작가는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 보게 된다.

전시된 지하실 벽의 얼룩을 보는데 송민지의 회화를 볼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보게 됐다. 얼룩이 바닥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마 습기 때문일 것이다. 얼룩의 모양은 제각각이었다. 그 중엔 멋지다고 할 만한 형태들도 있었다. 그러다 천과 벽에 남은 자국과 흔적들을 번갈아 가며 보게 되었다. 원인과 현상, 의도와 생겨남 사이의 중간값들이 뒤섞여 있는 상태를 바라보는 게 좋았다. 회화와 벽의 생김새가 서로를 보완하고 있는

1 《웁 프로젝트》, (2025.10.28 - 11.28), 서울 중랑구 모처(예약 확인 후 상세 주소 공유): <https://www.instagram.com/p/DQL57m9Ek-DI/>

듯했다. 이전까지 송민지의 회화를 가까이서 볼 때 무엇을 봐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막막 해지기도 했는데, 이 전시에서는 벽의 얼룩과 물감 자국을 비교하며 가까이에서도 작품을 뜯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송민지의 회화 없이 그 벽은 내게 그저 더러운 벽이었을 것이다.

그 지하실은 송민지에게 적합한 전시 환경이었다. 일반적으로 회화를 전시하기에는 부적합한 공간임에도... 보통 회화는 흰 벽에 걸렸을 때 멋지기 마련이니 말이다. 흰 벽 하니 누군가 내게 해줬던 말이 생각난다. 지금 서울에서 흰 벽이라는 조건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이였다. 깔러리뿐 아니라 대관 공간, 독립 공간, 카페, 소름까지 기본값이 흰 벽과 LED 조명인 상황에서 우리가 전시 공간이라 부르는 흰 공간은 이미 화이트큐브의 맥락은 희미해진 채 무색무취하고 혼한 설정으로만 남았다는 얘기였다. 그 말을 곱씹다 보니, 혹시 나 역시 서울 전시 공간의 조건에 무감각하게 작업을 맞춰오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경계심이 들기도 했다.



《움 프로젝트》(2025) 전시 전경, 사진 촬영: 이지섭.

《움 프로젝트》가 반가웠던 이유는 여기에 있다. 송민지는 자신을 흰 공간에 맞추지 않았다. 흰 벽과 회화라는 익숙한 조합에서 벗어나기를 스스로 선택했다. 아마 그는 흰 공간에서 자신의 회화가 위축된다고 느꼈을지도 모르겠다. 이를 재고한 끝에 작업과 더 닿아 있는 전시 환경을 찾아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는 낡은 지하실을 택했고, 그 벽을 흰색으로 다시 칠하지도 않았다. 얼룩을 지우지도 않았다. 공간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두겠다는 선택은, 조건을 설정하고 관조하는 방식으로 회화를 만드는 작가에게서 의도적으로 이어진 태도였다. 그래서 나는 《움 프로젝트》를 전시로 여길 수 있었다.

고근호는 천의 균열, 종이의 구겨짐과 같은 물리적 변형을 조건으로 삼고, 그에 응답하며 지형을 그리고 탐색하는 회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PCO를 공동 운영하고 있다. 개인전 《굽이굽이》(2025), 《2》(2024), 《이리저리》(2024), 《조율하는 퍼즐》(2022)을 선보였고, 《6 Murals》(2025), 《Open Corridor》(2024), 《Rules》(2016)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다.